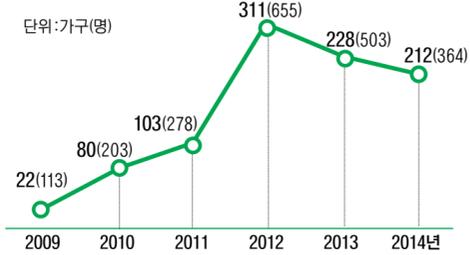


나주 혁신도시 효과... 귀농·귀촌도 활기

■ 나주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 2014년 귀농·귀촌 가구 연령별 분포



나주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최근 3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귀농·귀촌인구 증가세는 혁신도시 완공에 힘입어 일자리 다양화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면 정주여건 개선과 원주민 간의 갈등해소 등이 중요 과제로 분석됐다.

◇귀농·귀촌 급증=농림수산식품부 2014년 12월 기준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지역 귀농·귀촌 가구는 2009년 22가구(113명), 2010년 80가구(203명)에 머물렀지만 2011년 103가구(278명), 2012년 311가구(655명), 2013년 228가구(503명), 2014년 212가구(364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로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묶여 있던 개발제한 구역이 풀린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지역 귀농·귀촌인 연령대로는 40대(27.4%), 50대(26.9%), 30~60대(18.4%) 순으로 자본력과 노동력이 있는 40~50대가 54.3%를 차지해 초고령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자의 주 작목으로는 벼, 배추 등 노지작물이 66.28%로 가장 높고 과수(13.9%), 원예시설작물(8.4%)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나주지역으로 귀농·귀촌한 가구원수를 보면 1인 124가구, 2인 51가구, 3인 18가구, 4인 19가구 등으로 나타나 2012년 311가구(655명)에 비해 '나 홀로 농촌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전 거주지로는 광주가 134가구가 가장 높고, 경기지역이 30가구, 서울 32가구, 전남 14가구 순이다.

개발제한 풀리며 3년간 증가세 노지작물 66.3%·과수 13.9%

98%가 농촌생활 계속 유지 시 각종 정책 적극 지원 한몫

특이한 점은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13가구가 나주로 귀촌했지만 이들 지역에서 귀농한 가구는 한 가구도 없다. 또 지난 5년간 461세대의 귀농가구 중 기업승계 농가는 70가구에 불과해 순수 도시인이 새롭게 농사를 시작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지원책도=이들 귀농·귀촌인의 정착률을 보면 98%가 2~3년 경과 후에도 농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시로의 재이주도 1.9%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시 농업협회의소 내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경영 등 각종 정보와 교육훈련을 지원해 왔다.

또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민인 점을 감안해 접근성이 좋은 서울에서 지자체 귀농담당자와 전문상담원 5명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책 추진현황으로는 ▲농업 창업자금으로 농지구입,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화물자동차 포함), 농

식품 가공·제조시설 등에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세대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 ▲농가주택 구입자금으로 세대당 5000만원까지 연리 2.7%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귀농정착금으로 전입 후 3년 이내 60세 이하 귀농인에게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으로 2000만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로 60세 이하 귀농인이 지붕, 화장실, 부엌 등을 개량할 경우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연수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농지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나주시는 또 지난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을 위해 '제 2의 인생, 귀농의 꿈을 지원하는 나주 만들기'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10억원 ▲귀농의 집 조성 3억6000만원 ▲민간주도형 귀농학교 육성사업 3억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2억4800만원 ▲상생행복 두레농장 육성 시범사업 2억원 ▲귀농인 멘토링 지원사업 3억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억3500만원 ▲귀농정착 지원사업 4억3800만원이다.

또 귀농의 집 조성으로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빈집을 수리하여 5년간 월 10만원으로 임대해 준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착희망 지역에 선도농업인 및 지역단체 회장, 이장 등을 멘토로 지정해 주고 있다"면서 "젊은 귀농인이 함께하는 '상생행복 두레농장' 공동사업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남평지구 아파트 부지 매각 완료...개발 사업 탄력

나주 남평지구 아파트 부지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단독, 상가 분양완료에 이어 아파트 부지 매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남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정호건설(주)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착수한 지 3년여 동안 팔리지 않고 있던 3블럭 부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총 30만3429㎡ 중 ▲1블럭 4만2745㎡ 838세대 ▲2블럭 3만2006㎡ 700세대 ▲3블럭 4만5633㎡ 816세대 등 총 2354세대가 들어설 3개 블럭의 아파트 부지가 매각이 완료됐으며, 호털부지(3418㎡) 1필지만 남은 상태이다.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호건설(주)는 1블럭 아파트 부지 계약자인 양우건설(주)의 자회사로 4만5633㎡ 부지에 816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정호건설은 1단지과 같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이 '양우내안애'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해 남평지구 아파트를 다른 지역과 달리 차별화된 고급스런 아파트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총 235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용지를 모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된 지역 발전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혁신도시 이전기관 환영 빛가람 풍류 한마당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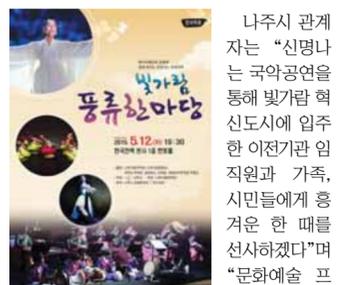
내달 12일 한전 본사 한빛홀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입주를 축하하고, 원도심 시민과의 화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무료 국악공연이 열린다.

나주시는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전력 본사 한빛홀(충주)에서 '빛가람 풍류 한마당'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나주 시립국악단을 비롯해 국악인 박애리, 발레리노 오윤환,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우리 가락을 선보인다.

또한 국악 관현악과 장구춤, 부채춤, 남도민요, 사물놀이 협주곡, 국악가요 '속대머리'와 발레, 타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 관계자는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 시민들에게 흥겨운 한 때를 선사하겠다"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미비한 혁신도시에 공연문화를 확산하고 전파해 문화가 숨 쉬는 빛가람도시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꽃 심기 등 농촌마을 가꾸기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지사장 박광호)가 농촌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시사는 최근 나주시 반남면 신기 저수지 주변 500㎡에 꽃잔디, 팬지 등을 심는 등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나주시 직원과 반남면사무소 직원, 신기마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광호 지사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지역주민과 함께 땀 흘리며 헌신한 노력들이 하나둘 모일 때 농업인의 행복이 지



역 내에서 뿌리내린다"면서 "앞으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통해 나주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귀농·귀촌 영농기초교육



귀농아카데미의 친환경자재만들기 교육

氣의 고장 영암군
YEONGAM-GUN

氣의 고장 영암

무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 **홍박고구마**
밤고구마
서명농협 061-472-5011
- **영암배**
신복농협 061-472-6288
- **영암멜론**
도포농협 061-471-8900
- **로컬푸드**
영암농협 061-470-8888
- **영암매력한우**
덕진농협 061-473-3207
- **명품대봉감/곶감**
규정농협 061-472-1777
- **달마자살 골드**
영암군농협통합PC 061-471-0215
- **무화과/팥/무화과**
삼호농협 061-464-6010

• 구입문의
품목별 생산농협 및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
TEL : (061)470-2378